

다양한 장르 아우르는 오월문학 총서

5·18재단 30주년 기념 퍼네 시·소설·희곡 등 묶어 총 5권 아동·청소년 부문 다음달 발간 “생명·평화에 대한 간절한 바람”



“편히 가라네 날더러 편히 가라네/ 꺾인 목 잘린 팔다리 끌고 안고/ 밤도 낮도 없는 저승길 천 리 만 리/ 편히 가라네 날더러 편히 가라네.// 잠들라네 날더러 고이 잠들라네/ 보리밭 풀밭 모래밭에 엮드려/ 피멍든 두 눈 억겁 년 뜨지 말고/ 잠들라네 날더러 고이 잠들라네...”(‘씻김굿’ 중에서) 위 시는 지난 1985년 발간된 신경림 시집 ‘달님세’(창작과비평사)에 수록된 ‘씻김굿’이라는 작품이다. 남도의 무속인 씻김굿은 망자의 넋을 위로해 저 세상으로 편히 갈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작품은 80년 오월 광주의 희생자들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쓰여졌음을 알 수 있다. “꺾인 목 잘린 팔다리로는 나는 못가, 피멍든 두 눈 고이는 못감아”라는 화자가 억울하게 죽어간 이의 입을 빌어 풀어낸 절절한 한을 표현한 것이다.

지금까지 오월문학, 특히 오월 관련 시는 많은 작품들이 창작됐다. 시는 현장성이 강한 장르다. 앞으로도 무수히 많은 시들이 오월 광주를 모티브로 창작되고 또한 시를 매개로 다양한 콘텐츠들이 생산될 것이다.

5·18민주화운동 44주년과 5·18기념재단(이사장 원순석) 창립 30주년을 맞아 ‘오월문학총서’

(문학들) 2차분이 발간돼 화제다.

모두 5권으로 발행된 이번 총서는 지난 2012년과 2013년에 펴낸 ‘오월문학총서(시, 소설, 희곡, 평론 전 4권)’에 이은 이후의 성과물을 집대성했다. 당시 1차분은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에 선정된 것을 기념해 발간됐다.

이번 총서는 시, 소설, 희곡, 평론이 발간됐으며 아동·청소년 부문은 7월 말까지 발간될 예정이다. 시는 고은, 신경림, 정호승, 문익환, 김정란 등 총 205명의 시인이 쓴 시 205편을 총 6부로 나누어 수록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월의 싸움’을 주제로 쓰인 시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오월의 상흔을 담고 있다. ‘오월 햇살 아래 핏방울’(김정란), ‘첩

첩 무등無等(정용국), ‘오월유사五月遺事’(김사인), ‘이팝꽃 피는 오월’(김완), ‘눈물의 주먹밥’(고정희), ‘오월’(오봉옥), ‘5월은 내게’(이영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월의 싸움’(김남주), ‘몸통에서 분리된 모가지의 노래’(김정환), ‘오월 산불’(박남준) 등을 만날 수 있다.

소설은 이순원, 정찬, 홍희담, 김승희, 손흥규 등 15명의 작품이 수록돼 있으며 희곡은 박효선, 최치언, 이당금, 이지현 등 12명의 작품을 연극, 마당극, 판소리, 영화, 뮤지컬, 영상다큐로 구분해 수록했다.

평론 부문에서는 김동춘, 김경중, 심선옥, 이성혁 등 총 16명의 구작과 신작을 만날 수 있다.

총서의 간행위원장을 맡은 원순석(5·18기념재단 이사장)은 발간사에서 “‘광주학살’이라는 참담 비극과 ‘해방광주’라는 환희의 영광 속에서 탄생한 ‘오월문학’은 좌절된 희망과 슬픔을 계승하는데 그치지 않았다”며 “삼라만상의 못 생명들의 소중함, 분단이데올로기의 타파와 평화적 삶에 대한 간절한 소망으로 나아갔던 것”이라고 의미를 밝혔다.

이번 총서의 간행위원회는 조진태 시인(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이 추진위원장을, 이승철 시인이 편집위원장을 맡았다. 책임편집위원 시 부문 김형수(시인)와 이승철(시인), 소설 부문 채희운(소설가)과 김형중(문학평론가)이 맡았다. 희곡 부문은 전용호(소설가)와 김소연(연극평론가)이 평론 부문은 강형철(시인)과 오창은(문학평론가) 담당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 부문에서는 박상률(시인) 안오일(시인) 등이 활동했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국악, 세대와 세대를 잇다

광주 서구, 보성군립국악단 초청 공연 27일 빛고을국악전수관



‘국악 잇다’ 공연에 출연 예정인 보성군립국악단 단원들. (빛고을국악전수관 제공.)

세대와 세대를 국악으로 잇다. 보성과 광주의 전통민화를 연결하다.

광주시 서구가 보성군립국악단 초청 공연 ‘국악 잇다’를 오는 27일 오후 7시 빛고을국악전수관 공연장에서 펼친다.

공연은 판소리, 가야금병창, 남도민요, 국악가요 등으로 채워지며, 지난해 3월 서편제 보성에서 설립한 ‘보성군립국악단(예술감독 박춘명)’이 출연할 예정이다. 이목을 끈다.

판소리 ‘춘향가 중 속대머리’로 막을 연다. 춘향이 이 도령을 그리워하는 옥중가로, 김세종제 춘향가 버전으로 만날 수 있다. 이어지는 박관용류

‘진도북춤’은 진도 지역에서 모내기할 때 추던 풍장굿과 북채춤 등에서 유래했다. 실제 지명이 작품 안에 등장해 실감 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가야금병창 ‘홍보가 중 제비노정기’도 레퍼토리에 있다. 이 밖에도 춘하추동 사계절 변화를 묘사한 신민요(남도민요) ‘신사월가’, 대구모 풍물놀이인 각색한 ‘얇은 반 사물놀이’, 국악가요 ‘태평가, 율해야 캐지나칭칭나네, 새타령’ 등도 울려 퍼진다. 창작부에 김명진·박혜정·김유빈 등이 출연하며, 이승호(대금, 태평소), 최원영(쟁과리), 최민희(장구), 서근원(북), 박정후(징) 등도 무대에 오른다. /최유빈 기자 rubi@kwangju.co.kr

‘김현승 시문학상’ 문순태 시인 선정

다형기념사업회, 내일 빛고을시민문화관서 시문학제

다형 김현승 시인을 기리고 지역 신인 예술인들을 격려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다형기념사업회와 광주예총이 ‘제2회 김현승 시문학제’ 및 ‘신인예술상 시상식’을 오는 28일 오후 2시 빛고을시민문화관 대극장에서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시낭송 공연을 비롯해 문학 세미나, 성악 공연, 시상식 등도 함께 펼쳐질 예정이다.

‘김현승 시문학상’은 광주를 대표하는 시인 중 하나인 다형 김현승의 문학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는 목적으로 지난해 제정됐다. 올해부터 라인문화재단 지원으로 시상금을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1회 수상은 시인에 이어 문순태 시인(소설가)이 2회 수상자로 선정됐다.

문순태 시인은 지난 1965년 김현승으로부터 ‘현대문학’에 시 ‘천재들’이 추천돼 시로 문단에 나왔다. 이후 1974년 ‘한국문학’ 신인상에 ‘백제의 미소’가 당선되면서 소설 창작의 길을 걸었다. 지난 2023년 ‘홍어’를 모티브로 한 100여 편의 시를 묶은 시집 ‘홍어’(문학들)를 발간해 홍어에 내재된 전라도적인 정서와 미학을 구현한 바 있다. 지금까지 모두 3권의 시집을 펴내며 서사와 시를 아우르는 독특한 작품세계를 선보였다.

문 시인은 “스승의 이름으로 된 문학상을 받게

돼 감개무량하다”며 “앞으로 이 상을 받게 된 것은 소설가이지만 시를 쓰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여 시를 쓰는 데도 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예총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신인예술상’(상금 500만원) 대상자도 선정하고 시상식을 진행한다. 광주예총 10개 단체 협회원, 비회원들을 대상으로 이원일(건축), 손호은(국악), 신해은(연극) 등 총 17명이 선정됐다. 한국사진작가협회 광주시지회장과 광주대 평생교육원 사진아가카데미 강사 등으로 활동했던 고(故) 송재은 사진작가는 특별상을 받게 된다.

이어지는 축하공연에서는 이태리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한세대 D.M.A 음악학박사과정졸업한 소프라노 김선희가 무대에 오른다. 피아노 반주는 도쿄 심포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협연 경력 등이 있는 피아니스트 정의빈이 맡는다.

광주예총 임원식 회장은 “다형은 조선대 문리과 대학 교수를 역임했으며 문예지 ‘신문학’을 창간하는 등 광주·전남 시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며 “이번 시문학상과 신인예술상 시상식 김현승이 시 정신을 계승하고, 청년 예술인들의 창작 의욕을 북돋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한희원 작가 ‘생, 존재로부터’ 내일까지 광주과기원 오통아트홀

한희원 작가는 지난 50여 년간 자신만의 독특한 화풍을 일궈온 광주를 대표하는 예술가다. 90년대 서정성과 인간 내면을 드러낸 작업에 집중했다면 2020년대 이후로는 강한 터치와 두꺼운 질감을 강조하는 작품을 구사해왔다.

한희원 작가의 ‘존재’를 모티브로 한 ‘생, 존재로부터’ 전이 광주과학기술원(GIST) 오통아트홀에서 28일까지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존재와 밀접한 화두인 삶과 죽음에 대한 사유를 형상화한 작품 20여 점을 선보인다.

특유의 두터운 질감으로 형상화한 20여 점 작품을 볼 수 있다. ‘사랑’, ‘존재의 초상’, ‘존재로부터’는 작가가 천착하는 목적인 주제가 응결된 그림들로 인간이란 존재는 무엇이며, 그 존재들을 무엇을 위해 사는지 등 깊은 사유의 흔적이 투영돼 있다.

그러나 작품들은 현실과 유리된 사변적인 분위

기만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삶과 동떨어져 형상화된 것이 아닌 일상의 문제들을 수용하고 확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이번 전시는 1970년대 민중미술로 화단에 등단한 이후 자신만의 화풍을 일궈온 작가의 예술적 궤적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결국 그의 작업이 인간의 존재와 삶의 본질로 점차 수렴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펼쳐질 예술적 여정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붉은 색조와 두터운 질감으로 표현한 ‘사랑’은 삶에서 추구해야 할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일깨운다. 깊고 고요한 분위기를 환기하는 작품은 우리 시대 잃어버린 사랑의 의미를 숙고하게 한다. 저마다 생각하는 사랑의 무늬와 빛깔을 작품과 비교해 생각해볼 수 있다.

디렉터를 맡은 최순임 작가는 “이번 전시는 한 작가가 ‘존재’라는 모티브를 토대로 삶과 사랑, 상처와 기억, 예술과 영원 등을 다채로운 작품을 만날 수 있다”며 “많은 관객들이 오통아트홀을 찾아 존재와 연계된 가족과 사랑의 의미를 생각해볼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존재로부터’

한편 조선대 미술교육학과를 졸업한 한 작가는 전남연극제 무대미술상, 원진미술상 특별상, 광주 시민대상 문화예술부분 대상을 수상했다. 약 70회 개인전을 열었으며, 저서 ‘이방인의 소묘’를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